

5대 신성장산업 육성 저변 확대 나서

전주시, 탄소·3D프린팅·드론·IoT·ICT 산업 등 교육 기회 제공·사업화 지원

전주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탄소산업과 3D프린팅산업, 드론산업, IoT(사물인터넷)산업, ICT(정보통신기술)융복합산업 등 5대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저변확대에 나섰다.

특히 기존 탄소와 3D프린팅, 드론산업 기반 구축에 이어 사물인터넷(IoT)과 ICT융복합 등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도 관련 교육 제공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창업 기반 확대에 본격 나선 방침이다.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서문산성, 이하 진흥원)은 올해 국비 4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사물인터넷 등 지역 내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창의성과 창업의지가 뛰어난 (예비)창업자

를 대상으로 체험형 창업교육 및 창업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창업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스마트창업자 사업은 앱/웹, 콘텐츠, IT융합 및 사물인터넷(IoT) 등 IT관련 지식서비스분야의 예비창업팀 및 창업을 희망하는 교육생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창업교육을 제공하고, 우수창업팀에 대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올해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온라인 창업교육과 기술분야 전문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의 오프라인 교육으로, 교육생들이 단기간에 최소한의 비용을 가진 제품을 개발하고, 고객 반

응을 검증하여 제품을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속 반복하는 실전 창업형식인 린스타트업방식(Lean Startup)으로 진행된다.

진흥원은 린스타트업 방식으로 고객 반응을 확인해 최소한의 기능만을 구현하는 초기 시제품에 대한 검증을 지원하고, 교육수료자 중에서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소유한 예비창업팀을 선발하고 창업에 필요한 사업화자금과 사무공간, 전문가 멘토링,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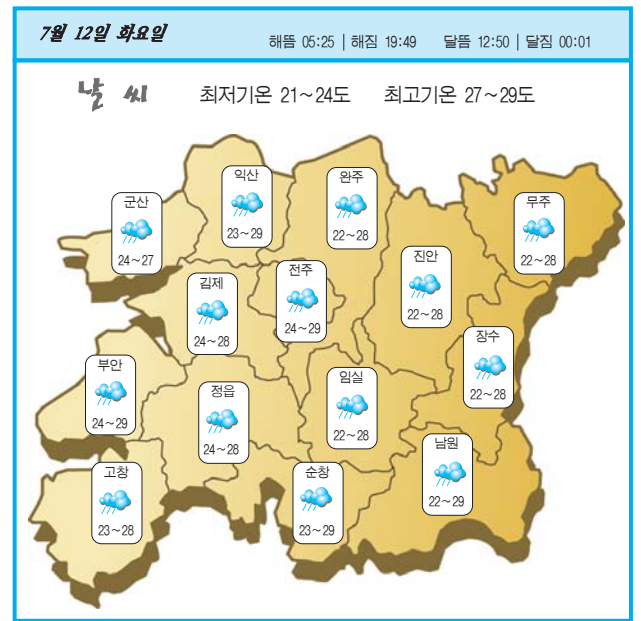
시는 사물인터넷 등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의 창업저변 확대에 앞서 오는 15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2016년 스마트창업자 창업교육생 모집을 위한 사

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전주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탄소와 3D프린팅, 드론산업 등을 포함한 미래핵심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탄소밸리 구축 △전주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 △탄소복합재 신상품개발 지원센터 건립, 3D프린팅산업 추진을 위한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구축·운영 △3D프린팅 기업지원 및 유치 △3D프린팅과 지역 특화산업의 융합,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ICT융복합 농업용 드론센터 구축 △드론 연구개발 지원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북대 신한류사업단, 파리서 '한국의 궁' 축제 개최

경복궁 메인테마로 다양한 체험·공연 프로그램 구성...체험 부스도 설치

전북대학교 신한류창업인재양성사업단(이하 신한류사업단)이 이번엔 프랑스 파리에서 축제를 연다.

11일 전북대에 따르면 신한류사업단은 축제 개최를 위해 내달 2일까지 머물며 프랑스 곳곳에서 '한국의 궁(Goong de la Corée)'을 주제로 신한류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것으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대 8개 학과(문헌정보학과, 사학과, 건축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통계학과, 산업디자인학과, 한국음악학과)에서 30명의 학생들이 모여 축제를 기획했다.

이번 축제는 조선시대 왕이 거주했던 한국의 궁 중에서 경복궁을 메인테마로 하여 다양한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체험부스는 '소주방', '환원정', '경회루'라는 경복궁 공간의 이름을 빌려 각 공간의 특색과 어우러진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궁궐 내에서 임금의 조석과 점심 수라를 장만하던 공간인 소주방에서는 달고나, 화채, 전통한과 등 한국음식 체험을,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 환원정에서는 부채꾸미기나 한복 체험하기 등을 진행한다.

더불어 나라에 큰 경사나 사신이 왔을 때의 연회 공간인 경회루에서는 격파체험과 고무신 던지기, 젓가락 체험 등을 경험해볼 수 있다.

한국문화 체험부스 외에도 한국음악학과 학생들의 전통공연, K-POP공연,



전북대학교 신한류창업인재양성사업단(이하 신한류사업단)이 이번엔 프랑스 파리에서 축제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대 8개 학과(문헌정보학과, 사학과, 건축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통계학과, 산업디자인학과, 한국음악학과)에서 30명의 학생들이 모여 축제를 기획했다.

태권무, 플래시몹 등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페스티벌 실무 사전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직접 한류 콘텐츠를 기획, 개발하고 준비한 '한국의 궁(Goong de la Corée)' 축제는 프랑스의 특성을 파악하여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한 축제를 해외 현장에서 개최함으로써, 한국 문화 전파를 넘어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힘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런던대 협약 체결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국제 분쟁해결 전문가인 아이팩 조정중재센터(회장 김철호) 주관으로 런던대학교(ADR 분야 법학석사 학위과정 운영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원광대는 지난 5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 이희성 법학전문대학원장과 김철호 회장,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법무부 서울 출입국 박갑남 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협약을 통해 런던대학교 국제조정·중재 학위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주관한 IPAC(사단법인 아이팩 조정중재센터)는 국내의 법인이거나 개인이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전통적인 법원 시스템 밖에

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여러 가지 대체적 분쟁해결(ADR) 절차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런던대 법학석사 학위과정(LLM)의 공식 대리인이며, 전문교육 프로그램 전파와 분쟁해결 참여 등 우리나라 조정·중재 서비스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원광대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중재 제도의 필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은 ADR의 국내 확산 및 국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민형 기자

도교육청, 산간 중학생 해양안전체험교실 운영

오늘부터 19일까지 3회 걸쳐

전북도교육청이 동부권 학생들을 위해 해양안전체험교실을 실시한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학생해양수련원이 산간내륙지역 소규모 중학교 학생들의 해상사고 대처능력을 위해 12일부터 19일까지 1박2일, 총 3회에 걸쳐 '내륙산간지역 중학생들을 위한 해양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해양안전체험교실에서는 바다 레프팅과 해상안전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프로그램을 운영한

다. 해상안전교육은 이안류 및 너울성파도 등을 극복하는 안전교육, 구명조끼 착용법·선박탈출 자세·구조선까지 생존수영법 등을 1.2m 깊이 수영장에서 반복 숙달하는 선박 위기 탈출훈련, 실제바다에서 훈련하는 바다생존수영, 일상생활용품인 페트병 등을 활용한 인명구조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시간에는 삼각대 및 압박붕대를 활용한 환자 처치법, 갑자기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심폐소생술을 반복 숙달한다.

/고민형 기자

우리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동행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전라북도교육청은 더불어 가는 학부모교육을 꿈꿉니다.

'내 아이를 넘어 '우리 아이'를 위한 행복한 동행, 전북의 학부모 여러분이 함께 걸어 주세요.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